

酩酊雜學(V)



吳 蘇 白

(韓國弘報研究所·代表)

本稿는 술에 얽힌 이야기를 씨리즈로 연재하는 것임
—편집자 주—

■ 목 차 ■

I. 알콜과 신경

II. 언론계 주장 5명

I. 알콜과 신경

신경은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몸 안에 있는 여러 기관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있다. 그것은 호르몬보다도 한층 직접적이며, 더우기 시각적으로 빠르고, 또 세밀한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 신경은 온몸으로 뻗어나가는 상태에 따라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누는 것이 상식적인 분류법이다.

중추신경계는 몸의 중심부에 있는 신경계로서 대뇌·중뇌·소뇌·교(橋)·연수(延髓)등으로 이루어진 소위 뇌수(腦髓)와 척수(脊髓)를 말한다. 또 그보다도 말단에 있는 신경은 여러 갈래로 분산하여, 각 내장기관이나 근육, 피부 따위에 퍼져 말단에서 중추로, 혹은 중추에서 말단으로 자극을 전하는 역할을 맡아보고 있다.

따라서 알콜로 말미암아 생긴 신경의 변화는 가령 그것이 중추신경계에 발생한 것이라도 뇌파(腦波)와 같은 고등기술의 전기물리학적 방법을 응용하든가, 뇌조직을 꺼내어 미량(微量)으로도 가능한 생화학적 방법을 쓰든가, 또는 뇌의 조직을 염색해서 병리학적인 검색을 하기 전에는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처음 방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살아있는 동물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조사할 수가 없으니, 아무래도 신경계전체에 일어나는 제각기의 반응에 따른 상위(相違)로써 알콜의 효과를 판정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 까닭에 알콜의 뇌에 대한 작용을 생리학적으로, 혹은 약리학적으로 알기위해 제일 흔히 이용되는 방법은 감각기(感覺器)를 매개체로 한 신경자극의 전달속도와 전달의 정확도 변화, 혹은 단순한 반사운동에 나타나는 변화이다.

19세기 말엽에 크레펠린(Kraepelin)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알콜을 마셨을 경우에 나타

나는 인쇄 식자공(植字工)의 작업능률 변화를 조사한 바있다. 그래서 중간정도의 음주에서는 물론 양적인 개인차는 컸었지만, 활자로 골라서 조판하는 속도가 늦어질 뿐 아니라, 정확도가 떨어져 오식(誤植)이 많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우기 이처럼 능률이 떨어지고 과오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비판력이 술로 인해서 약해지기 때문에 실험대상자들은 한결같이 알콜을 마시는 편이 일이 빠르고 잘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70여 년전에 실험한 이것이 그 후 점점 확증을 얻게 되어, 오늘날도 옳은 판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알콜을 대량으로 주면, 우선 의식을 잃고 이어 반사와 운동하는 힘을 잃으며, 다시금 호흡이 정지되어 죽고 만다. 이렇게 호흡이 정지되는 것은 연수에 있어 호흡중추가 알콜의 억제작용으로 흥분할 힘을 잃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사실, 적은 분량의 알콜에 의해서도 이 호흡중추의 작용은 어느 정도 억제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호흡중추는 혈액속의 탄산가스의 농도가 늘면 흥분하고, 그 자극을 폐로 보내어 호흡운동을 강화시키며, 폐포(肺泡)를 통해 산소를 혈액속으로 흡수하는 동시에 탄산가스를 공기속으로 배출하는 일을 촉진한다.

알콜로 중추의 감도가 둔해지면, 그 작용이 약해져서 혈액속의 탄산가스량을 높아진대로 방치하게 되어, 소위 아짜도지스가 생긴다.

아짜도지스는 흔히 산독증(酸毒症)이라고 불러, 혈액속의 산이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늘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으로 체액의 밸런스가 허물어진 상태로서 여러가지 고장이 생긴다.

우리들은 술을 마시면 난폭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또 이야기나 운동이 오히려 자유로워지기도 하고 피로감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알콜에는 자극작용이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이다. 알콜 혹은 술을 마시면, 우선 조절이나 억제에 관계가 있는 작용면이 억눌리기 때문에 남아있는 흥분작용만이 전면으로 나타나게 되어, 보기에는 자극작용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하지만 이같은 선택적인 억제작용은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전체의 작용이 억눌리기 되어, 아무나 보아도 억제적 혹은 마취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크레펠린 다음으로 이 점을 명확히 알아낸 것은 지금으로부터 60년쯤 전에 이루어진 도찌와 베네틱트의 상세한 연구다.

그들은 약 60그램의 위스키와 비등한 30cc의 알콜과, 90그램의 위스키와 비등한 45cc의 알콜로써 단순반사(單純反射)와 복잡반사를 조사했다. 그 결과, 무릎을 탁 치면 나타나는 술개진반사(膝蓋腱反射)처럼 척수만이 관여하는 단순반사에서는 알콜로 말미암아 반사가 생기는 시간이 10%나 길어지고, 더우기 발이 튀어오르는 정도는 반으로 줄어들고 말았다.

더우기 복잡한 소리의 자극으로 눈을 감는 것 같은 반사운동에서도 이같은 알콜의 투여는 영향을 주며, 반사운동이 일어나는 시간은 7% 늘고, 운동의 정도는 19%나 줄어든 것이다. 또 얼굴 옆으로 내민 물체를 보기 위해 시선을 옮기는 운동의 속도나, 손가락을 세밀하게 움직이는 운동의 스피드도 약 10%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 보면, 하부에 있는 중추일수록 더욱 강하게 억제되고, 또 자극은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보다 하등동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개구리의 반사에 대한 알콜 효과를 조사한 결과에서, 온갖 반사가 억제된다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글라스고우 대학의 엔투올박사는 10명의 대상자에게 10잔의 위스키(300cc)를 마시게 한

뒤, 오줌 속의 알콜량과 반사시간과의 관계를 4시간에 걸쳐 상세히 조사했다. 그 결과는, 두 측정치가 대단히 강한 정(正)의 상관(相關)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실을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 하바드 대학의 맥팔랜드 교수등에 의해 이루어진 실험에 의하면, 0.05%를 넘는 혈중 알콜농도에서는 확실히 단순반응시간도 연장된다. 하지만 그 이하의 경우는 음주 후 15~20분간은 오히려 이 단순반응시간이 빨라지는 짧은 시기가 있다고 한다.

터널시(視)생긴다.

또 복잡반응시간, 즉 심리학에서 말하는 선택(選擇)이라든가 판단의 요소가 들어오는 실험(키를 누르느냐, 안 누르느냐, 또는 어느 키를 누르느냐 따위)에서는 低濃度에서도 지연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예를 들면, 시력에 의한 明暗度, 색깔의 차이, 소리의 강약이나 피치, 두 가지의 觸角差와 같은 감각을 식별하는 테스트는 모두 낮은 레벨에서부터 장애가 나타난다고 한다.

또 혈중농도가 0.15%정도가 되면, 영어에서 말하는 터널視, 즉 시력의 범위가 몹시 좁아져서, 터널 속에서 앞을 보는 것 같은 상태가 된다. 이같은 시력의 狹小化는 특히 자동차사고와 연결되고 만다. 물론 이러한 협소화는 음주뿐 아니라 피로하거나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아지는 불쾌지수가 높을 때, 산소의 결핍, 그 밖의 여러가지 스트레스 상태에서도 생긴다. 그리고 술을 마신다해도, 앞서 말한 것처럼 혈중농도가 꽤 높아지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흔히 '하늘이 돈짝 만하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역시 터널시의 현상이다.

그런데 이 터널시의 원인은 생리학에서 말하는 시야의 축소가 아니라, 더욱 중추성, 다시 말하면 주의력의 결여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전체 시야 중의 일부에만 주의력이 고정되기 쉽다는 것을 미국 학자들의 연구에서 밝혀졌다.

그러면 이같은 알콜의 억제효과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알콜량으로 발생하는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혈액 1cc중에 1밀리그램의 알콜이 있으며, 즉 대충 잡아서 알콜의 혈중농도가 0.1%가 되면,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아도 가벼운 신경기능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알려졌다.

그 농도를 가지고 체중 60킬로그램인 사람에게 대해서 추산해 보면, 여러가지 술의 양에 대한 아래의 <표 A>와 같은 일람표가 된다.

<표 A> 알콜의 보충작업을 방해하는 양

술의 종류	알콜농도(%)	분 량
청 주	16	400
소 주	35	170
위 스 키	45	130
포 트 와 인	20	300
포 도 주	15-9	670-400
스 타 우 트	7	850
맥 주	4	1,500

그러나 이 표준은 첫눈에 보아도 변화를 인정할 수 있는 한계일 뿐, 자동차운전을 비롯해서 비교적 정밀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에서는 그보다 적은 양으로라도 잘못을 저지러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K대학의 M박사도 이같은 음주와 眼球운동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데, 혈중 0.05%~0.1%의 알콜농도에서 눈알의 운동은 매초 20~30도 이상의 각도의 加速에서 제대로 운동을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플리커치(電氣閃光值)의 변화로 음주의 영향을 조사한 것이 있다. 위스키는 40~60cc, 청주 120~130cc로, 조사한 바로는 플리커치가 증대하여 눈의 식별력이 낮아졌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런데 이 저

하는 치옥트산 10밀리그램을 술마시기 1시간 전에 투여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타이프의 오식이 늘어난다.

파논이라는 영국의 학자는 30cc의 알콜로 타이프라이터의 오식이 2배로 늘고, 또 그런 상태는 2시간이나 계속된다고 보고했다. 또 마일즈라는 학자도 34cc의 알콜로 타이프라이터의 오식이 40%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의 병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격연습의 결과는 20cc의 알콜을 마시게 한 것만으로 빗나간 탄알이 30%나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맥두걸이라는 학자도 주의력과 정신피로를 측정하는 기계로 알콜의 영향을 시험했더니, 15cc의 알콜로 이미 주의력이 60%나 감퇴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앞의 표에서 나타난 한계는, 이들 기술요소를 포함하는 작업에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일람표는 알콜을 60cc마셨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이다. 그러니까 자동차운전이나 그 밖의 정밀작업일 때는 일람표의 허용량을 반으로 줄여도 많은 정도이다.

또 위의 계산에서는 개개인의 술에대한 음주량, 혹은 취하는 정도의 대소 따위는 문제시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점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를 들어, 파논의 보고에서 보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 알콜을 투여하면, 단 11cc 만으로도 타이프라이터의 오식이 88%나 증가한다고 한다. 그런데 중간정도의 음주 습관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30cc를 먹이고서야 겨우 오식을 찾아낼 정도였는데, 비교적 대주가인 어떤 사람은 30cc의 알콜로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조금도 오식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술을 평소애 안 마시는 약한 사람이 맥

주를 컵으로 한두 잔 마셔도 금방 취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스포츠의 기록저하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술 때문에 능률이 떨어지고 과실을 저질러도 주관적으로는 오히려 일의 능률이 오른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운동경기와 같이 크나큰 근육활동이 요구될 경우, 음주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잠깐 생각해보기로 한다.

지금부터 40년전게 독일에서 시험해 본 연구로는, 맥주와 거의 비슷한 4%로 탄 알콜을 30cc를 마시게 한 바, 정도가 약하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기록저하를 나타냈다고 한다. 알콜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평균 4m 20을 뽀 넓이 뛰기의 선수들이 알콜을 마신 후에는 평균 3m 90으로, 약 7%의 기록저하가 나타났다.

더우기 이같은 기록저하보다도 점핑 직전의 달려가는 과정에서의 실패, 즉 계속 내리달려 버리는 실수가 술을 마시기 때문에 평소의 5배나 늘어난다는 것이 기록되고 있다.

벨기에의 허버링박사는 19~30세의 21명의 남자 의학생을 대상으로 신경근계통의 음주로 인한 영향을 조사했다. 순알콜을 5배로 얹게 해서, 체중 1킬로당 0.6cc의 알콜을 마시게 했는데, 그 분량은 대략 맥주 1리터정도이다.

그 결과, 좌우의 握力이나 背筋力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垂直뛰기, 80m 달리기 따위에서는 뚜렷한 차가 나타났다. 즉 신경과 근육이 델리키이트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신체활동에서는 알콜에 의한 두렷한 저하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筋力計 따위로 재어서는 술을 마신 영향은 나타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는 적어도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피로감이 경감하지만, 등산할 때에 30cc의 술을 마신 예에서는 오르는 능률이 12%로 줄고, 더우기 그 간의 칼로

리 소비량이 오히려 9%나 늘었다고 하는 보고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정밀한 컨트롤을 필요로 하는(신경을 쓰는) 일은 물론이며,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보통 일이나 스포츠 따위에도 알콜은 해롭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처럼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기록을 높이거나 시합에 이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절주정도가 아니라 금주를 해야되겠다.

또 일반인이라도 운동을 하기 전에 술을 마신다는 것은 아무리 승패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술을 절대로 마시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심장의 근육이 수축하는 힘이 약해질 뿐 아니라, 순환 전체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신경의 작용도 쇠퇴하기 때문에 혈액의 순환이 불충분해서, 심할 때에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염려가 있다. 특히 바다, 산, 수영장 따위에서 해엄치기 전에 마시는 술은 자살행위라고 말한다.

그 까닭은, 물의 냉기는 몸을 자극하여 혈압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데, 술을 마시면, 심장의 활동이 해엄이라는 과격한 운동과 냉수의 자극이라는 두가지 부담을 이겨낼 수가 없어 악순환이 생기고, 마침내는 심장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업동설한에 흔히 얼어죽는 사람의 기사가 신문에 나는데, 이것은 대개의 경우 음주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다.

술을 마시고 얼어죽는 이유는, 술을 마시면 혈관의 수축력이 줄어 몸의 표면을 흐르는 혈액이 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는 몸이 화끈거리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몸이 식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길 옆에 쓰러져, 여전이 기분이 좋은 것 같아 꾸벅꾸벅 조는 동안에 곧장 천당으로 직행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II. 言論界 酒將 5 名

참석자

신상초(申相楚 · 중앙일보 논설위원)
 염재용(廉在鎔 · 合同通信 정치부차장)
 조덕송(趙德松 · 소년조선일보 主幹)
 최근영(崔權泳 · 日曜新聞 편집부장)
 司會 吳蘇白

(註 1967. 4. 28 雅叙園)

酒道는 타락했는가?

오소백 : 바쁘신 시간을 이처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좌담회에 대해서 느낌이 많았는데 오늘은 좀 자신을 가졌어요.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로 한 신문회관 지하실 다방에 신선생이 나타 나셨는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취기가 아직 가지지 않은 대로였어요. 그래 이거 어려움이 많으시겠다고 했더니 신선생 말씀이 이런 좌담회야 말로 멋 있는 좌담이다. 그리고 의미가 있는 좌담이다. 다른 정치좌담 같은 것 보다는 의의가 있어 발벗고 나섰다고 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가지 여러분께 알릴것은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있는 맥주는 크라운 맥주회사 제품입니다.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시고 마셔주십시오(웃음). 보통 주도에 대해서들 흔히 말하는데 어떤 경우엔 주도가 땅에 떨어졌다. 사회의 변천과 더불어 이 주도도 상당히 변천해 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후퇴 했다는 말도 있는데 이 주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언론계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흔히 신선생을 술 많이 하시는 분으로 꼽고 있는데 우선 신선생님 주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상초 : 주도라는 말은 대인관계에 있어 모랄이라 하겠는데, 요즈음 주도가 타락했어. -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건 결국 대인관계의 모랄이 타락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술이란 주로 친한 사이에 함께 마시게 되는데 술마실 때 어떤 것을 이상으로 할것이나하면, 어디까지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소동락이란 말을 하지만, 아무래도 술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사고가 마비되기 때문에 자연히 늙은 사람은 젊은 기분이 되는 거고, 젊은 사람은 늙은 기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선배나 연배되는 사람에게 야, 자, 해서도 안되는 거고 그것도 어디까지나 모랄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주도가 타락했다 하는 것은 젊은 친구들 가운데 특히 그런 사람이 많은데 술을 마시다가 도중에 뺑소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몰라도 이유가 있더라도 아무리 취중이라지만 그 이유는 설명하고 나가야지 이거 좋지 않다고 봐요. 그 다음 또 술을 급수로 따져서 마시는 사람, 가령 요리집이나 바아니면 안간다, 또는 맥주나 위스키 아니면 안마신다는 이런 사람들을 나는 인간적으로 틀렸다고 봅니다. 술이라는건 요릿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막걸리집에서 떨어져야 그게 진짜 술이지, 일정한 기준을 두고 고급요정이나 바 아니면 안간다는 이런 사람은 인간성 자체를 의심합니다.

오소백 :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염선생께서는 술잘하시는 아버지 염상섭(소설가)선생을 모셨던 입장이라면, 주도같은 걸 어떻게 지키셨는지...

염재영 : 아버님은 혼자서 늘 술을 자셨는데, 술을 마시고 독설을 하거나, 집안 식구들을 들들 뷔는다든가, 남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술을 먹으면 공연히 시비조로 나온

다든가 남을 헐뜯거나 안먹겠다는 사람에게 강제로 권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겠어요. 아버님께서는 저가 술을 먹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터치도 안하셨어요. 그런데 아버님께 술을 받아 먹은 일은 단 한번 밖에 없는데요. 그때가 한국일보 창간후 일년인가 해서 장기영 사장이 아버님한테 조니 위크를 한병 보냈는데 저가 정월초 하룻날 세배를 하고 나니까 너 술을 잘한다지? 하시며 조그만 잔을 내 놓으시기에 한 댓잔쯤은 주실줄 알았는데 딱 두잔밖에 안주잖아요, 아마 그 술이 아까워서 그러셨는지... (웃음)

오소백 :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아들이 술을 마시는데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안하셨지만, 대작은 단한번 밖에 없었군요, 어디 조선생님도 한말씀 해보시지요.

조덕송 : 저 개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술을 마신지가 한 20년 되는데 직업하고 관련된 술을 마셨어요. 처음 입사하니까 선배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술을 받아주곤 했고 또는 회사에 무슨 일이 있을때 같이 어울리기도 했어요. 취재하느라고 마시고 이래서 저는 직업하고 관련된 술을 마시게 되서 한량의 경지에서 본 주도같은건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술집에 가끔 가 보면 마음의 안정이 안되고 뭔지 모르게 불안해요, 이게 어디서 오느냐하면 2,30대의 젊은 층들이 전에는 그래도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고 조심하는 면이 있었는데 요즈음은 그게 아니에요. 고성방가에 저들끼리 싸우고 접시가 날고 안하무인이야, 그래서 불안하게 되는데 이것이 세태에 따른 변화인지는 몰라도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예요, 그리고 이젠 여담인데 우리가 대작을 할때 그 연유는 잘몰라도 수상수하를 막론하고 처음 몇잔은 두손으로 권하는 것이 하나의 예법으로 되어 있는데 요즈음 젊은 사람들을 보면 첫잔부터 한손으로 덤빈단

말이에요. 그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없이 그러겠지만, 받는 사람으로 볼때는 내색은 물론 안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쾌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손으로 주고 받는 게 뭐냐? 저 역시 곰곰히 생각해 본일은 없습니다. 한번은 우리나라 주재 일본 기자 한사람이 처음엔 자기나라 습속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은 외손으로 권하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겐 오른손으로 권하고 했드렸는데 나중에 보니 우리는 그렇지 않거던...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그 다음 부터 꼭 두손으로 권하고 두손으로 받곤 했어요, 나중에 얼마쯤 친해지니까. 저한테 두손으로 주고 받는 연유가 뭐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찌다 어세가 한번 아는체 해버리면 끝까지 아는체 해버리게 되는 수가 있는데, 저도 그때 이걸 민속학적으로나 따져 본일도 없으면서 어떻게 아는체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한번 들은것 같기도 해서 그건 옛날에 양반으로 행세 깨나 한 사람들이 도포라는걸 입었는데, 그 소매자락이 길어서 그것을 한손으로 거뒀어야만 했다... 그러한 버릇이 남아서 그런것이라고 자신없는 대답으로 얼버무린 일이 있는데 그후 선배되시는 몇분에게 물어봐도 확실히 대답하시는 분이 없더군요. 연유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배운 버릇이 그렇기 때문이요 새 젊은 사람들이 주도랄까 멋이랄까, 예법같은걸 무시하는데는 아주 불쾌해요, 술좌석에서 생쥐같이 빠는 것도 알됩니다...

아들놈 대학들면 대작하겠다.

오소백 : 술과 분위기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부자 시간이라든가 사제시간에 서로 대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최근영 : 제가 술을 시작한 것은 중학교 3학년때 부터 지금 이시간까지 계속중이죠. 물론, 어릴때야 숨어서 마셨지요, 실수도 많았고, 그런데 그후 부모 술하를 떠나 일본에 가있다가 해방이 되어 나왔는데, 아버님이 진보적인 사상이 있어 그랬는지 해방이 되었다고 그러셨는지 몇년만에 만난 저를보고 악수를 청하시면서 술상을 차려놓고 술을 한잔 권하시더군요. 그러시면서 옛부터 술은 부모 밑에서 배워야 옳게 배운다면서 네가 객지에서 술을 배웠다면 주도를 모를테니까 배워라 하셔서 함께 대작한 일이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 큰 애가 국민학교 4학년인데 이놈이 커서 대학에 들어가면 같이 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그런데 주도 애기를 하는데 물론 술을 먹고 난장판을 부린다가 이런거는 나쁘겠지요. 그러나 술을 먹는데까지 「도」자가 들어 가니까 어쩐지 구속을 받는것 같은 데요. 저도 2,30년동안 술을 마시면서 유패회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흥분해서 싸우기도 하고 했지만, 구태어 술먹는데까지 무슨 도다해서 구속을 받는다는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오소백 : 사회자로서 외람됩니다만, 저의 경우로 봐서는 지금 대학다니는 애들이 셋이 있는데 얼마전 제가 일본에 한두달 여행할 일이 있어 그때 대학다니는 놈과 부산까지 내려가는 기차간에서 포항포도주 네병을 마련했습니다. 그래 병을 따가지고 오랫동안 너 술한잔 하라고 했더니 전연 못한다고 딱잡아 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놈이 마시는줄 뻔히 알거던... 그래서 너 이놈 이렇게 시시한 줄 몰랐다. 부자간에 술한잔 하기로소니 어떠냐해서, 싫다는걸 우격다짐으로 들어서 네병을 다 비었어요. 포도주도 얼른히 취하더군요, 그 다음은 담배를 또 권했지요. 그랬더니 이건 죽어도 못한다는거야(웃음) 그래서 악취미 인지는 몰라

도 라이터불까지 갖다 대면서 억지로 피우게 했죠. 세모금쯤 돌아서 빨더니 꼬두만... 그후부터 우리집에선 이 문제는 해방입니다. 부자간에 같이 따뤄마시기도 하는데 집사람은 또 애들 교육 잘시킨다고 비꼬지만, 내가 교육 잘 못시키는건 뭐냐고 큰소리지요. 내가 양반이 못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그런데 신선생님 사제지간은 어떠세요?

신상초 : 사제지간에 술먹는 것도 좋지요. 제가 대학교수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주 이런 기회가 있어요. 첫째, 선생이라면 어렵게 생각하는 거리감을 없애는데 좋고, 그리고 강의실에서와는 달리 술좌석에서 같이 어울려 이야기를 주고 받을때 여기에서 정말 인생에 관한 오묘한 진리같은걸 논할 수 있잖아요.

한 번은 모대학 정치과 학생들 27명이 모여 선생이라곤 나 혼자 앉혀두고 27대1로 주머니 받거나 해서 한번 혼난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간에 술을 마시면서 슬프게 생각한 일이 한번 있어요. 6.25전후 해서 내가 모대학 법대에 있을때, 어느 술좌석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자기가 제자라면서 한잔 사겠다고 억지로 몇잔을 권하고 해서 같이 술을 먹었어요. 검사라는 친구가 술이 몇잔 들어 가더니 나보다 먼저 취했어. (웃음) 그래 처음에는 깎드시 신선생님 하더니 나중에는 신형으로 변하두만... 그래서 내가 너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지 뭘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나한테 신군이라 할 놈이다. 너같은 놈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차지하든 그것만으로서 낙제라고 좀 주의를 준 일이 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에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을 낮추어야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요런 기풍 말입니다.

최근영 : 술을 먹었다고 해서 자기를 가르친 선생한테 형이다 뭐다 하는 것은 이견 있을 수 없어요.

첫술먹고 장작개비로 맞고

오소백 : 수주선생은 여섯살때부터 술을 마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술을 언제부터 마셨는지요? 그리고 첫술에 대한 인상이 어떠했는지요.

조덕송 : 저는 스무살이 넘어서 술을 마셨는데, 소인극을 한다고 다닐때 무대뒤에서 시골막걸리를 주발로 몇개 마셨지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거의 정신을 잃고 자버렸어요. 나중에 이야길 들으니깐 마루에서 방까지 기고 달코 제대로 가누질못하고 그냥 발광을 하드래요. 저는 그렇게 처음 술에 대음을 해버려서 아직도 기억이 선명해요. 그 뒤로 부터는 자기 양에 대해서 자꾸 가늠을 하게되고 마구 벌떡벌떡 마시지 않고 비교적 조금씩 자주 마시는 편이지요.

최근영 : 저 역시 첫술에 혼이 단단히 난일이 있어요. 저는 중학3학년때 만주 안동으로 여행을 하게 돼서 저희들 고향(해주)에는 막걸리란 별로 없고 소주가 많아요. 대여섯이 모여 내일 여행을 가는데 그냥 보내셔야 되겠는가 해가지고 한사람이 10전도내고 15전도 내고 해서 소주를 뒷병으로 두개를 갖고 와서는 나누어 먹고 길가에 나가 자빠졌어요. 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인데 아버님이 냉면을 자시고 나오시다가 발견하시고 함께 집에 들어가서 장작개비로 호되게 두들겨 맞고, 술을 다시는 안 막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게 저의 첫술인데 그 다음부터는 각별히 조심을 하는데 그게 잘 안되드군요.

이건 다른 애입니다만, 언론계의 중진이었던 어느 분이 하루는 술을 실컷 마시고 집에가서 마루에 구두를 벗어놓고 울걸이에 옷저고리와 바바리코트니 모자를 걸어두고 방에 들어와앉어요. 나중에 보니 방이라는 게 공동묘지의 무덤이더라요. 구두는 상석위에, 모자와 옷은 소

나무에 걸어두었다는 거예요. 이와같이 과음을 해서는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절주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염재영 : 저는 대학재학때부터 술을 했어요. 그때는 조금씩 했어요. 질서 정연하게 했지요.

지금까지 마신 술이 창경원 연못만큼은...

신상초 : 저는 그러니까 열아홉살때부터 먹기 시작한 셈이지요. 중학교 졸업할때 친구들과 모여서 한것이 첫술이 되겠습니다. 그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입학한날 부터 3년 동안은 줄곧 술을 먹었지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한 2년 마시다가 그후 6년동안인가 술을 중단했습니다. 일본군대에 끌려갔다가 도망을 쳐서 중국에서 항일운동을 하는 동안 거기서는 술이 귀해서 2년반동안 못하고 해방이 되고나서 신의주에서 공산당들한테 붙잡혀서 3년동안 감옥 생활하느라고 못했습니다. 한번은 법대학장이던 고병국씨와 창경원 수정(水亭)에서 술을 마셨어요. 고선생이 나보고 신선생이 한 20년 술을 마셨고, 내가 한 30년 술을 마셨는데, 우리 둘이 마신술이 연못되지 않을까요, 해서 따져봤더니 그렇게 되겠어요. (웃음) 창경원 연못물이 실상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는 술을 청탁불문하고 마시는 편이지요. 막걸리에서 부터 위스키까지 가리지 않고 마시는 편입니다. 다만, 나이도 이제 3,4분기인데 2,3년 전만해도 술마시고 내일의 건강이란 것에 대해서 생각해본일이 없어요. 나이가 마흔넷넘으니까 건강에 대한 조심이 되더군요. 그런데 술꾼이란 내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야 그게 진짜 술꾼인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 우리또래의 친구들이 하나 둘 음주전선에서 이탈해가는 데 그게 참 슬퍼요. (웃음)

술꾼엔 위선자 없다 정치인은 술을 마셔라

오소백 : 더 얘기 하세요.

신상초 : 그런데 우리는 가끔 술을 엄하게 배웠느니 그렇지 않느니 이런 말을 듣는데 저는 술을 배울때 보다도 영향이 있다고 봐요. 술을 마시게 되면 절제심이라는게 없어집니다.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다음은 술이 술을,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술마시는 사람들이 기억상실이니 기억중단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튿날 깨어났을때의 얘가지 행동할 당시에는 기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술먹는 사람이 추태를 부렸다던가, 공연히 남과 시비를 걸었다고 할때 분명히 그런 행동을 할때는 의식이 있었다고 봅니다. 술을 먹으면 평소보다 더 조용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평소에는 조용하던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용기를 얻어서 떠드는, 두 타입이 있어요. 보통은 과대망상에 걸리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하나 공연할 것은 술먹는 사람에게는 위약자는 있을지 몰라도 위선자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술을 먹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선이에요.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깨끗하게 사는 것 처럼 보일까? 뒷구멍으로는 별의별 장난들을 다하면서 말이야, 국회의원이 막걸리 집이나 바에 나타났다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예요. 술 안마시는 체하면서 최고급 요정에만 다닌단 말이야, 우리나라 정치계는 위선자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에게 술을 먹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술마시는 습관을 배워두면 최소한 위선은 안할거란 말이야, 민중이 주시하는 속에서 술을 마실 수 있다는게 깨끗하다는 증거지.

오소백 :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신선생님이 지금 열변을 토하시는데...

신상초 : 그렇다구요, 이런 좌담회에 국회의원 몇사람 데려와서 모두 털어놓고 얘기 한번 해봐라 하면, 아마 어느 누구도 얘기 못할 겁니다. 어건 일반대중이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올바른 정치인을 모시려면 위악자를 뽑는 것이 원칙이지 위선자를 뽑아서는 안됩니다. 위악자는 하등의 손해가 없으니까...

악주를 추방하라

오소백 : 이번엔 화제를 바꾸어서 우리 오늘 주당들이 모였으니까 나쁜술에 대한 성토를 한번 해 봅시다. 술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종류에 구애됨이 없이 악주(惡酒)에 대한 성토를 하자는 겁니다. 렛텔은 밝힐 필요 없이...

최근영 : 나쁜 술이란걸 아예 만들지 않아야 되겠지요. 해방후 이북에 있을때, 소비조합에서 나오는 카바이트 술이라는게 있었어요. 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먹었어요. 그때 그걸 사가지고 거기에 사과도 넣고 대추도 넣고 해서 먹은 일이 있습니다. 얼마전, 양조장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얘기가 밀주라는건 절대 입에 대지 말라 해요. 왜 그런고 하니 밀주라는건 그 사람들 생활수단으로 만들고 있는데 단속은 심하고 하니까 심지어 변소에 묻어둔다는군요. 그래서 옹게 발효도 안되고 해서 마시고 나면 이튿날 똥통수를 치고 하잖아요. 그리고 밀주라도 누룩이나 쌀을 제대로 넣고 만들면 몰라도 요즘은 또 밀가루의 죽을 쑤어 약품가공을 해서 하루만에 만들어 낸다는군요. 이게 사람에게 해롭지 않겠어요? 당국에서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겠어요. 저도 술을 가리지 않고 마시는 편인데 이 얘기를 듣고는 좀 삼가합니다.